

OpenDoors

2019. 10. Vol. 210

박해와 선교현장

시리아 *Syria*

10월 행사안내

매카슬론대회 & 2019선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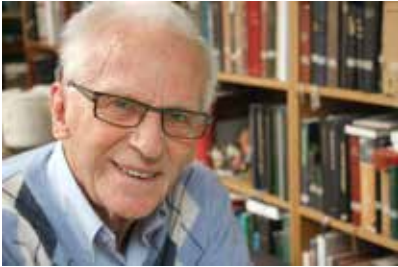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하나님의 부르심 (2)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넌 안돼!”

사람의 영혼을 급속도로 시들게 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 한 마디일 것이다. 나는 평생 이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살았다. 하나님이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정색을 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꾸짖어야 한다.

1953년 글라스고 WEC에서 훈련을 받을 때, 성탄절 전후한 짧은 방학 동안 지낼 만한 곳이 없었다. 요통으로 인해 가을 학기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의 나의 최고봉”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목사님의 아내인 비디 사모님께 감사하다는 편지까지 쓴 적이 있다. 사모님은 한 번 찾아오라고 했다. 나는 성탄절 휴가를 댁에서 보내고 1월에 학교로 돌아왔다.

전체 학생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휴가 기간에 어디 갔는지 물었다. 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은 “뭐? 자네가? 안 돼지!” 나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영적 거장의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을 배척하는 나라로 떠나는 것이 내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

다. 왜 안 되겠는가!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넌 안돼!”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결실을 맺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만큼이나 평범했다. 그러나 그들은 닫힌 문을 여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왕국의 이인자가 되었다고? “그래도 넌 안돼!”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그래도 넌 안돼!” 양치기 소년 다윗이 조약돌만으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혔다고? “그리도 넌 안돼!” 요나가 죄악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설교 한 번으로 모든 시민을 회개하게 만들었다고? “그래도 넌 안돼!”

그렇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방의 문이 닫혀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문들은 백화점 자동문처럼,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멀리서 보면 닫혀 있지만 우리가 그 앞으로 걸어가면 문 위에 달린 센서가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문을 열어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VI



06 박해와 선교 현장
시리아(Syria)

10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스토리
알레포(Aleppo)에서 사랑으로 준비된 사탕과 음식가게

13 사건과 소식

14 2019년 박해 지도

16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사역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

20 오픈도어 박해 퍼즐

21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22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23 2019 선교대회



OpenDoors 2019년 10월호 | 통권 210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VI

드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귀에게 막혀서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이 되었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아비규환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그 땅이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복이 되었다. 나를 집결소에서 꺼내준 첫째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돈을 보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동생이 이렇게 돈 보내지 말고 차를 한 대 사달라고 부탁했다. 차를 사면 장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껏 돈을 모아서 한번에 중고차를 살만한 목돈을 모아서 브로커를 통해 보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보위부에서 첫째 동생을 잡아갔다는 것이다. 후에 다른 친척을 통해 들으니 그 돈을 보내고

사용하는 와중에 보위부(현 보위성)에 꼬투리가 잡혀서 집결소로 붙잡혔다는 것이다.

돈을 보낸 내 입장에서 맘이 너무 슬프고 불편하고 안타까웠다. 하필 내가 보낸 돈 때문에 동생이 고통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사님께서서는 나에게 동생에게 돈만 보내지 말고 복음을 전했어야 하지 않았겠냐고 이야기해주셨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돈만 열심히 보냈던 것이 역효과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잡혀서 집결소로 갔던 동생은 4개월만에 공사중에 사고를 당해서 결국 거기서 죽었다. 나중에 사망 소식을 듣고 엄청 울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떡을 보내기에 급급했구



나 영혼을 구할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괴롭고 미안했다.

첫째 동생이 집결소에 갇히자 막내 동생이 형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막내 동생은 군대 가서 팔을 다쳐 팔을 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 후 막내는 성질이 사납고 술에 찌든 사람이 되었다. 막내는 형을 빼내는 데 실패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중국으로 나왔다. 중국에 나온 막내는 독기가 서려 눈이 벌겅고 옷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 혹시나 신변의 위협을 당할까봐 가지고 왔다고 했다.

나를 만난 막내는 술을 마시면서 통곡을 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역시 돈을 전달한 그 브로커가 문제였다. 그 브로커 때문에 동생을 잃었던 것이다. 함께 슬퍼하다가 정신이 들었다. 막내에게라도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막내를 타이르고 예수님을 믿자고 했다. 그렇지만 막내는 형이 죽었는데 이판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성질을 내며 행패를 부렸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님은 막내를 보호 처소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막내는 성경 통독을 하며 지냈다. 당장 머물 곳이 없으니 따라는 갔지만 막내는 여러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억지로나마 통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굳었던 팔이 펴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다신 만난 막내는 새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며 자신의 팔을 들어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히려 못미더웠는지 집사님께 나를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를 하고 막내는 복으로 들어갔다. 막내와는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을 하다가 연락처가 바뀌면서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수 년이 지난 최근에 나는 다른 친척을 통해 막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막내는 그 안에서도 신앙을 잘 이어갔으나, 안타깝게도 모종의 일로 신앙이 발각되어 끌려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은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파왔다. 그렇지만 이미 이 땅을 떠났다면 순교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고, 혹시나 살아있다면 그 어려운 곳에서도 기도로 이겨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 땅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춤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나는 오늘도 막내 동생과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한다.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시리아

Syria



인구: 18,284,000명

기독교 인구: 814,000명(4.5%)

박해정도: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11위

수도: 다마스쿠스(Damascus)

주 박해 요인: 이슬람, 인종적 갈등, 점령군, 조직화된 범죄와 부패

보고기간: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박해지수 82점으로 시리아는 2019년 세계기독교 보고서에서 11위를 차지했다.

1. 박해의 주요 요인

이슬람의 압박: 과격파 무장 이슬람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위협 요소이며 특별히 이슬람을 반대하는 지역에서 더욱 심하다.

인종적 갈등: 가족의 명예와 같은 부족들의 전통과 가치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압박 요소이다. 특히 쿠르드 족이 많이 사는 시리아 북부 지역과 중부 사막 지역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점령군의 위협: 현재 시리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박해는 무장 세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조직화된 범죄와 부패: 조직화된 범죄는 내전으로 인해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에 이르면서 발생했다. 부패는 식량 배급과 의료 시설의 사용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소수종교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

2. 박해의 주체는 누구인가?

과격파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협박과 위협의 대상이 된다. 확대가족에서 생활하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의 경우 가족은 가장 직접적인 박해자가 된다. 정부 당국도 교회의 복음전파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경찰조사는 받기도 하며 감시를 당하게 된다. 정부군이 점령한 지역을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발언들은 이슬람 지도자들에 게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며 가족이나 비밀경찰을 통해서 협박한다.

3. 박해의 결과는 어떠한가?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노출된 관계로 종종 납치의 표적이 된다. 하지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등 복음적 교회 공동체도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서구의 지원을 가진 사회구성체로 인식되며, 세계에 여론화시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쉽게 공격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집트	2019박해보고서	2018박해보고서
보고 기간	2017.11 ~ 2018. 10	2016. 11 ~ 2017. 10
사망한 기독교인	14	0
공격 당한 기독교인	75	26
체포 당한 기독교인	0	0
공격 당한 교회	7	1
공격 당한 기독교인 자산	160	10



4. 박해의 사례들

- 2018년 9월 7일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르드(Mar-deh)에서 여섯 명의 아이들이 포함된 12명의 신자들이 폭탄테러로 숨졌다. 이 테러로 20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알카에다(al-Qaeda)와 시리아해방군(Free Syria Army)에 의한 사건이었다.

-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150명의 쿠르드족 신자들이 아프린(Afrin)을 떠나야 했다. 이 지역이 이슬람 군인들이 장악할 것을 염려한 터키의 공격 때문이었다. 그들은 난민 아프린 지역과 알레포(Aleppo) 난민 캠프로 피난했다.

- 2018년 6월 시리아해방군(Free Syria Army) 아프린에 있는 연합교회를 몰수했다. 또한 선한목자교회를 방화하고 자신들의 슬로건을 페인트로 썼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아프린의 모든 교회들과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모이는 비밀 교회도 문을 닫았다.



내전의 시작과 전개

수년 동안 엄청난 파괴와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시리아 내전 사태는 매우 단순한 시위를 통해 발전했다. 2011년 5월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주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개입으로 내전으로 발전했다. 반정부 시위가 내전으로 발전한 주요 원인으로 세 가지 요소가 지적된다.

첫째, 중동의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는 운동이 아랍 지역에서 발생했다.

둘째,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실패가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켰다.

셋째, 정치적 개혁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양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내전 발발의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해서, 계층간의 갈등, 도시와 시골의 분열 그리고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반정부 시위가 어떻게 급속히 내전으로 발전하고 분파적 갈등으로 확산되었는지 잘 설명해준다.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초기에 정부는 새로운 정당을 허용하는 등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이내 전면적인 무장 진압으로 선회하였으며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였다. 내전으로 확산되면서 2013년 4월에 이르러서 시리아 난민은 1백



만 명, 9월에는 2백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타리 난민캠프(Za'atari Refugee Camp)와 레바논으로 주로 이주했다. 그 해 시리아 알사드 대통령은 진압을 위해 화학 무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의 강공에 반대파는 외국 지하드(jihadist) 군인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이 급진적 이슬람 무장 세력은 2014년 6월 시리아 라카(Raqqah)를 수도로 정하고 “Islamic State”(IS)의 탄생을 선포했다. 이후로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많은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이슬람 통치 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악해갔다.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IS가 점령했던 많은 지역들은 다시 수복되었으나, 이들은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투는 진행되고 있다.



내전의 피해

• 인명 피해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5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도 55,000명에 이른다.

• 사회기반 시설의 붕괴

95%의 시리아 인구가 의료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70%의 국민이 정화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85%의 국민이 생존을 위해 폐허 더미에서 가난과 싸우고 있다.

• 교육 시설 파괴

내전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부상당한 가족 혹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을 떠나 난민촌으로 대피하고 있다. 전체 아이들 가운데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 시리아를 위한 기도

- * 납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안한 치안을 위해 기도하자.
- * 충분한 의료품이 공급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특별히 신생아들을 위한 백신이 부족하다.



- *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사고 팔 것이 거의 없고, 시장은 텅텅 비었고, 물건도 거의 없고, 수출입 활동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 라타키아(Latakia)에 세워질 새로운 “희망의 센터들”을 위해 기도하자. 청소년과 남성 여성들을 위한 도서관과 교회로 쓰일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장도 준비될 것이다.
- * 건강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가난한 자들이 누릴 의료혜택은 거의 없다.
- * 시리아는 국내 전력, 연료 공급을 위해 기도하자. 전기의 공급이 없는 채로 밤시간을 살아야만 한다. 자동차 연료도, 그들의 식사를 요리할 연료도 부족하다.



[2019년 시리아 국외 거주 난민 현황]

국가	난민	국가	난민
터키	360만	이집트	13만
레바논	95만	요르단	67만
이라크	25만	합계	약 560만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스토리

스토리 1

알레포(Aleppo)에서 사랑으로 준비된 사탕과 음식가게

전쟁 도중 많은 시리아인들이 그들의 직업과 수입을 잃었습니다. 공장들은 파괴되었고, 최전선에 가까웠던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자주 약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시리아 전역에 사람들이 미용실, 약국, 신발가게, 옷 가게, 편의점, 음식점 등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알레포의 좁은 거리에서 사탕과 음식을 파는 주인은 바르투히 아바지안(Vartouhi Abajian)입니다.

"제 작업장은 매우 다양한 부엌이고 아르메니아식 부엌이며, 모든 종류의 음식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사탕과 식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저희는 바로 포장해 가실 수 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있지만, 특별주문도 받습니

다. 저희 음식은 아주 맛이 있고, 저는 음식을 아주 부지런히 준비한답니다."

"내전으로 가게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지원과 교회들의 지원이 저의 가게를 다시 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제 인생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재정지원이 제가한 걸음을 나서는 데 힘을 입었습니다."

"가게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이 아주 많은 이러한 나라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들과 아주 다를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무슬



림들에게 좋은 예가 되고 싶습니다."

"기독교 여성으로 이곳에 사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이 가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몇몇은 잔혹하고, 공격적이고, 몇몇은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 집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령은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 것입니다."

바르투히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해주신 것을, 저



는 이곳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부를 때 항상 도와주십니다. 저는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직업을 주신 이유입니다."



스토리 2

알레포(Aleppo)에 있는 조지 달리의 전기 가게

54세의 전기기술자 조지(George Dali)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다. 조지는 내전으로 인한 실직으로 인해 시리아를 떠나 해외에서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희망의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도 전기가게를 지원 받게 되면서 시리아에 남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상황이 나빴습니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일

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매우 어려웠고, 시리아를 떠나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일했지만, 저 혼자만의 삶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조지는 전기가게 여는 것을 교회에 제안했고 교회는 그의 제안을 승인해주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프로



젝트는 나한테 정말 잘 맞고 정말 성공적입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나는 가게의 물품을 샀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전이 한창일 때, 조지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일을 해야 했고, 시리아에 머물렀던 그의 가족은 스스로의 삶을 이겨내야 했다.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생계문제는 가족에게 큰 도전이었고 공포는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고, 시리아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지하실에 살았는데, 그들은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

람들이 재정으로 후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 집으로,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저희 곁에서 함께해주신 분들입니다.”

● 오픈도어의 “희망의 센터”가 제공하는 사회경제 지원은 대출을 통한 자립을 추구한다. 2년 6개월의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신자들의 사업의 성공률은 95%를 육박한다. 이렇게 회수된 자금은 다시 대출되어 수혜자를 확대해 나간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사건과 소식

스리랑카(Sri Lanka)

콜롬보 대주교인 말콤 란지스(Malcolm Ranjith) 추기경은 스리랑카 부활절 일요일 폭탄 테러로 적어도 176명의 아이들이 부모님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를 잃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폭발로 인해 적어도 106명의 신자들이 부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타스(Thass)는 “월드 와치 모니터(World Watch Monitor)의 영상에서 비살 아로라(Vishal Arora)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타라(Athara)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상태였다. 현재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가는 얼마 없다”고 말했다.

이라크(Iraq)

팀 스탠리(Tim Stanley) 박사는 지난 7월 9일 영국 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서구 사회에 원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종청소가 명백한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기독교인과 야지디 족이 인종청소를 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이슬람 국가와 다른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국가가 이 지역에서 밀려난 이후 실향민들은 서서히 그들의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취약하다. IS의 무장단체는 최근 몇 주 동안 이라크 북부에 있는 수백 에이커의 토지와 농작물을 불태웠다.

에리트레아(Eritrea)

적어도 150명의 에리트레아 기독교인들이 지난 두 달 간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터널로 구성된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다. 가장 최근의 체포는 8월 18일 에리트레아 보안요원들이 수도 아스마라 공항 근처의 고 다예프 지역에서 80명의 기독교인들을 구금한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돼 계속 그곳에 억류돼 있다.

4일 후인 8월 22일, 유엔(UN)은 종교적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연례 기념식을 가졌다. “오늘, 우리는 종교와 신념에 입각한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 지원하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지한다”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말하였다.

브르키나 파소(Burkina Faso)

북부 브르키나 파소에서는 교회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어 적어도 10명의 기독교인들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5월 12일과 13일에 있던 두 번의 공격으로 사망한 10명의 사람들 중에는 가톨릭 신부도 있었다.

5월 13일 월요일, 4명의 가톨릭 신도들은 자신의 성당이 있는 신가(Singa)에서 공격을 당했고, 무장 괴한들은 어린이들을 풀어준 뒤 신자 4명을 살해하고 조각상을 파괴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20~30명의 무장괴한들이 카야(Kaya)에서 90km 떨어진 다블로(Dablo)에 있는 가톨릭교회를 습격해 신도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번 테러로 6명이 숨졌는데, 이 중에는 34살의 시몬 얀파(Siméon Yampa)도 있었다.

- 1 북한
- 2 아프가니스탄
- 3 소말리아
- 4 리비아
- 5 파키스탄
- 6 수단
- 7 에리트레아
- 8 예멘
- 9 이란
- 10 인도
- 11 시리아
- 12 나이지리아
- 13 이라크
- 14 몰디브
- 15 사우디아라비아
- 16 우즈베키스탄
- 17 이집트
- 18 미얀마
- 19 라오스
- 20 베트남
- 21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2 앙골라
- 23 투르크메니스탄
- 24 말리
- 25 니제르
- 26 카메룬
- 27 콩고
- 28 에티오피아
- 29 타지키스탄
- 30 인도네시아
- 31 요르단
- 32 네팔
- 33 부탄
- 34 카자흐스탄
- 35 모로코
- 36 브루나이
- 37 튀니지
- 38 카타르
- 39 멕시코
- 40 케냐
- 41 러시아
- 42 몽골
- 43 우크라이나
- 44 오만
- 45 쿠웨이트
- 46 말레이시아

2019 어린이 박해지도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 사이즈)

ADVOCACY • BELLES • BOOKS • BIBLE TRAINING • BICYCLES • BLANKETS • BEDDING • BUCK-MAKING • CLOTHES • CDS • CHRISTMAS GIFTS • COMMUNITY DEVELOPMENT • COUS • CHURCH BUILDINGS • CHILDREN'S CAMPS • COUNSELLING • CHURCH GARMENT MAKING • DISCIPLINER • DEAF FELLOWSHIP • EMERGENCY AID • FISH FARMING • GROCERIES STORE • HAIR DRESSING BUSINESS • HEATING • INTERNET PROGRAMMES • JOB TRAINING • JEWELLERY MAKING • KEBAB RESTAURANTS • LEGAL SEMINARS • LETTER CAMPAINS • LIBRARY BOOKS • LITERACY TRAINING • LOANS FOR BUSINESS START-UPS • MATRESS MAKING • MUSHROOM FARMING • NECKTIES • HANDICRAFTS • NECESSITIES • NUMERACY PROGRAMMES • ORNAMENTS • FANES • PERSONAL FAMILY SUPPORT • PUMPKIN FARMING • PLASTIC FACTORY • RASHTA ACTION TEAMS • KARDI ACTION TEAMS • REBUILDING HOMES • SCHOOLS • SUNDAY SCHOOL MATERIALS • SEWING CLASSES • SAFE HOUSES • SCHOOL UNIFORMS • SETTING UP A SHOP • TRAVEL THEATRY • T-SHIRT PRINTING • UTENSIL DISBURSION • VEGETABLE CULTURE • WIDOWS ASSISTANCE • X-RAY CLINIC •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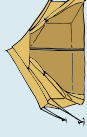
전세계 2억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는 매우 신한 종류의 따돌림(영파)을 말하며, 때로 폭력이 따릅니다.
이 지도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가장 어렵고 위험한 50개 나라를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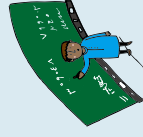
오프도어는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으며, 그들은 혼자서 아닙니다.



매년 오프도어는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2백 5십만 권 이상의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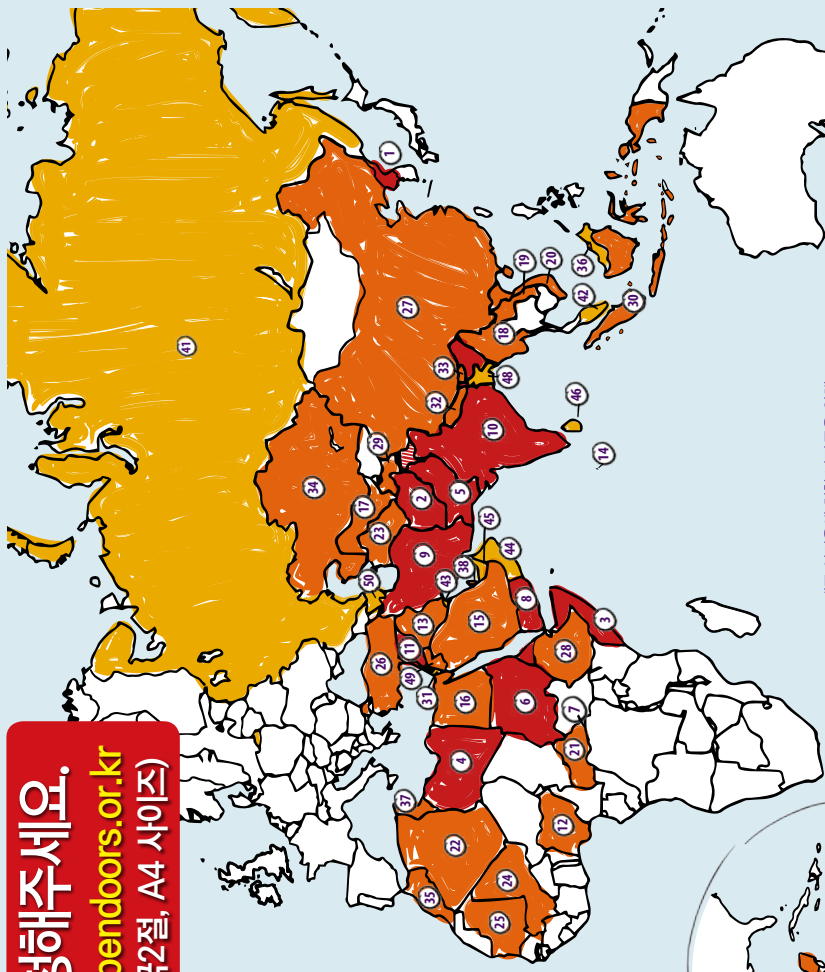
매년 오프도어는 친구 가족들을 잃은 백 만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 물, 집, 그리고 의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프도어는 백 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이겨 낼 수 있는 지식과 힘, 기술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백 만명의 사람들이 중동지역 화안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고, 이것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박해 받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게 어떨까요?
여기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제가 외도를 때: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세요.
제가 무너질 때: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종을 떠나 나날 때나: 재발 저의 곁에 있어주세요.
이 세상엔 주님의 것이요,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박해정도:
극심함
중심
매우 높음
높음

오픈도어 강의를 신청해주세요

강의 주제

- ▶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실상
- ▶ 북한 기독교인 간증
- ▶ 월남 기독교의 유산과 북한교회
- ▶ 기타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요청하기' 클릭
전화: 02) 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한국 오픈도어 정기후원 안내

소식지 신청 ()		300기도용사 신청 ()		
지 역	선 택	사 역	선 택	후원금액
북한		성경배달		
중앙아시아		제자훈련		
아시아		사회경제 지원		
중동		어린이와 청소년		
아프리카		여성과 치유		
라틴 아메리카		난민과 변호		
이 름			전화번호	
이 메 일			출 금 일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주 소				
은 행	은 행 계 좌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 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사역



사역 1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

1. “희망의 센터”의 역할

- “희망의 센터”는 오픈도어의 중동 캠페인 “Hope for Middle East”에 속한 프로젝트로서 내전으로 흩어진 시리아와 이라크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돕는 사역이다.
- “희망의 센터”는 지역 교회가 지역 공동체의 재건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영적인 돌봄을 위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난민 돌봄 센터이다.
- 센터의 장소와 건물은 임대를 하거나 지역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영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돌봄과 지원을 한다.

- 귀환하는 기독교 난민들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와 가족들이 장기간 시리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희망의 센터”는 두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둔다. 영적인 지원 및 실제적인 도움을 지원한다. 개인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적인 성장과 현실적인 자립을 증진하도록 지원한다.



2. “희망의 센터” 사역

사역 영역	활동	목적
영적 지원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배포	교회 재건 및 지도자 양성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 실시	교회 재건 및 전도 활동
	기도모임 및 리더십 훈련	교회 재건 및 지도자 양성
정서적 지원	정서적, 심리적 건강의 돌봄	트라우마 상담
	상담 및 지도	목회 상담
	영화 상영 및 스포츠 활동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물질적 지원	식량 및 생필품 지원	생존 활동
	건강 회복 및 의약품 지급	질병 치료 및 예방
	파손된 주택의 복구	주택 수리 지원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	아이들 및 청소년 교육
	소규모 대출 사업	자립 지원(Revolving Fund)

3. “희망의 센터” 지원 및 계획

오픈도어의 “중동에 희망을”(Hope for Middle East) 캠페인에 속한 “희망의 센터” 프로젝트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과 기독교 난민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이다. 또한 귀환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한 사역이다. 무슬림 난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며, 신자들에게는 자립과 교회 공동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희망의 센터”	현황 및 계획	기타
시리아 & 이란	16곳 운영	2019년 4월 현재(계속 설립 중)
1년 운영 예산	8천만원 - 1억2천만원	영적, 정서적, 물질적 지원 활동





사역 2

코끼리 삼키기

기독교계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을 때 흔히 쓰는 현대어 속담이 있다.

"코끼리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한 번에 한 입씩 삼켜라."

여기 우리가 코끼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

한 방법이 있다.

중동은 거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현 위기의 핵심을 두 나라로 좁혔는데 이는 바로 이라크와 시리아이다. 오픈도어가 중동문제와 지역 교회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 이라크, 시리아 크리스천에게 당면된 과제는 다음 3가지이다.

- (1)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시민권의 확립이다.
 - (2) 안정되고 존엄한 생활권을 세우는 일이다.
 - (3) 사회를 화해시키고 재건하는 역할을 할 사역자들을 발굴하여 세우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 과제들을 더욱 세분화해보자. 평등권 쟁취를 위해 교회는 그 동안 크리스천 평등을 박탈해 갔던 범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범국가적 차원의 평등 보장 기구가 세워지도록 요청하고 있다.
- 크리스천 기본 생활 조건을 달성하고 중



동사회 무슬림과의 화해적 주도권을
실행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
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금마련이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크리스천 사역을
위한 융통적 자금을 모금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그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세계 지도
자들 앞에서 전 세계적 지지를 얻도록
대규모의 탄원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세 가지 요
구사항이 꼭 관철 되도록 하는 것이

다. 범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낸 후에 이제 중동
크리스천의 희망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작은 세부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달성
해 나가면 될 것이다.

2017년 12월 이라크와 시리아 기독교인을 대변해 총
143개국 80만8172명의 서명이 적힌 청원이 유엔에
전달된 것은 탁월한 성과였다. 그러나 캠페인은 이것



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라크의 수많은 크리스천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시리아의 상황도 아직 안
정되지 않았다.

이제야 말로 그 동안 이뤄낸 탄원을 바탕으로 국가차
원의 평등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중동 크리스천을 대
변하며 중동 기독교인을 위한 융통적 펀드마련에 가
속도를 낼 때이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박해퍼즐

10월호



1				4					
			3			5		6	
2									
					7				
8				9					
				10					

● 가로열쇠

- 공공 예배를 주관하며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며 회당 건물과 가구와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직이다. 성경에 기록된 ○○○으로는 아이로(막5:22), 그리스보(행13:15), 소스데네(행18:17) 등이 있다.
- 10/9-10일까지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네덜란드 4M Foundation과 국제오픈도어, 한국오픈도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
-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다. 일곱 귀신이 들려 고생하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사역에 헌신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인물이다.
-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삽바라의 남편.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선행하려 했지만, 값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했다. 베드로가 이를 책망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목으로 인해 이들 부부는 죽음을 맞게 된다.
- 높은 곳을 올라갈 때 디디고 오를 수 있도록 계단 모양으로 만든 기구. 벨엘에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이것을 보았다.
- 신약성경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에 사용되었다. (초성 힌트 : ㅇㄱㅍ)

● 세로열쇠

-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대표 사역이다. 기간은 10/20~27일까지이며, 인도 현지 목회자를 초청해 인도의 박해상황과 사역에 대한 간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Main event '오픈도어의 밤'은 10/21(월) 오후 7:30분 남현교회(서울)에서 열린다.
- 소나 양 등의 가축을 풀어 놓고 기르는 넓은 산이나 들판. 목초지, 목장, 풀밭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초성힌트 : ㅈ ㅈ)
- '주여, 오시옵소서'란 뜻. 주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통용되던 신앙적 인사말이다.
-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사울과 다윗 때 제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쫓기던 다윗 일행을 도와준 일로 인해 그 일가 84명이 사울에게 전멸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다윗 즉위 후 사독과 대제사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도왔다.
- 구약성경. 통일된 국가 조직을 갖추기 전 과도 체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하던 타락하고 범죄한 암울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 북아프리카의 이 나라는 2011년부터 내전을 겪고 있으며, 범죄 조직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극심하다. 모든 국민은 무슬림으로써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전도 시 경찰에 연행된다. '2019 World Watch List'에서 Top5에 해당되며 기독교 박해 87점을 기록한 이 나라는?

□			유						
지	망	글	라	데	시		바		
난			굴			사	알	림	
주			로	템	나	무			
정	달					엘	로	힘	
답	리	브	가				루		
	다		라			아	하	와	
□	굽		지	성	소		마		

■ 9월호 당첨자 ■

박*하 (5028), 고*영 (4162), 이*이 (0798)님, 축하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10월 10일)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이슬람 무장세력(Islamic States)로 황폐화된
시리아와 이라크의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와 함께해주세요.

“희망의 센터”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희망을 재건합니다.

교회의 재건 및 제자훈련

전도 및 지역사회 재건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캠핑장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 산악 하이킹 63km / 산악 자전거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79명(확정) + 국내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2019 머스카슬론 대회 일정

1. 입소 및 스포츠 진행 시간

종목 참가자	입소 시간	각 종목 출발 시간
하이킹 63Km	9일(수) 오후 5시	9일(수) 자정 12시
산악자전거 120Km	9일(수) 오후 5시	10일(목) 오전 5시
마라톤 42Km	9일(수) 오후 5시	10일(목) 오전 5시
마라톤 21Km	9일(수) 오후 5시	10일(목) 오전 8시
마라톤 10Km	9일(수) 오후 5시 (10일 8시까지 가능)	10일(목) 오전 9시

2. 캠핑장 일정

일정	시간	기타
식사	9일(수) 오후 5시	참가자, 자원봉사자 식사
오리엔테이션	9일(수) 오후 7시	1시간 예상
식사	9일(수) 오후 11시	하이킹, 자원봉사 참가자
식사	10일(수) 오전 4시	마라톤, 산악자전거, 자원봉사 참가자
스포츠 피날레	10일(목) 12시 - 오후 2시	참석자 전원
저녁 식사	10일(목) 오후 5시	참석자 전원
해산	저녁 식사 후 해산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2019 선교대회

“오픈도어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악화일로에 있는 인도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의 싸움에 관한 증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사 : 알베르트(Albert) 목사(인도 현지 목회자)

주제 : 인도 교회 박해와 사역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저녁 7시 30분

장소 : 남현교회 1층 비전홀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170-18)
(1호선 개봉역 2번 출구, 5분 거리)

2019 선교대회 일정

10/20(일) 주일 오후예배 (PM3:00) 헤림교회 (김영우 목사, 경기도 하남)

10/20(일) 주일 저녁예배 (PM7:00)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 경기도 고양)

10/21(월) 오픈도어의 밤 (PM7:30)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 서울 구로)

10/23(수) 수요일 저녁예배 (PM7:30) 전주팔복교회 (조광훈 목사, 전북 전주)

10/27(일) 주일 오후예배 (PM2:00) 신성교회 (김윤태 목사, 대전)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